

‘北風’…4대강… 예산안 부실심사 우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돌입… 진통 불가피

국회의원들 지역예산 챙기기 막판 경쟁 치열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 주 내에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29~30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데로 12월2~5일 예산안의 증액·삭감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강행 모드’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현재 전체 상임위원회 14곳 가운데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5곳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예산안 처리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특히 대표론·압수삭액 정국의 여

파로 상임위원 예산심사 착수 자체가 늦어지며 시간 자체가 촉박했던 데다 연평도 포격 이후 상당수 상임위에서 여야가 극단적 충돌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수공 소관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 심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주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채 아직도 예산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여야 간사간 물밑조율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충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농수산식품위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독 농이기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14.7% 증액된 8730억원이지만, 민주당은 이 사업은 4대강에 물을 대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만큼 이중 53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오후 예산결산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방위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여파로 예산심사소위의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통해 정밀유도타격 무기 신규배치와 K-9 자주포 배치 등을 위해 약 263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방위원들이 전력 증강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구하면서 승인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의결은 오는 29일이 지나서야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여야가 무상급식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예산심사가 늦어졌다. 다만 진통 끝에 무상급식 문제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 ‘거증조정’을 맡기는 쪽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혔다.

이처럼 예산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치달으면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국회의원의 막후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구나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는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더해져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지역 사업을 반영시키거나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북간복지위의 경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발생하는 부랑인 보호 등을 위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17억5600만원 증액됐다. 여수는 복지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각 지역국립대 시설지원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지역예산 확보가 불발되면 예결위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 춥기 전에…” 연평도 구호주택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27일 오후 연평도 내 연평초등학교에서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들이 포격 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구호주택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평화 이슈’ 정국 모색

내일 기자회견 햇볕정책 거론할 듯

포성 정국의 와중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4대강 예산 등 주요 쟁점이 불거지면서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어렵게 된 때문이다.

손 대표는 일단 연평도 포격으로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평화를 능가하는 안보는 없다”,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며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평화를 주제로 공판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한 측근은 28일 “결국 궁극적 화두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대안과 해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표의 시선도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에 모아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대표가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관계 메시지를 내놓으며 선명성 확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애도정국 속에서 국민정서를 감안, 발언 수위를 다소 조절했던 것과 달리 햇볕정책 복원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북강 경책을 견지해온 현 정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를 계기로 대여 동력도 확보, 자연스럽게 대표론과 4대강 문제의 불씨를 되살려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안보 정국’ 적극 행보

전사 해병 영결식 참석 고인 애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포성정국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 다음날인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신속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5일에는 이번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공육 일병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안보를 튼튼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7일에는 당초 계획했던 팬카페 회원들과의 불우이웃돕기 김장 행사 참석을 취소한 채 오전 전사 해병들의 영결식에 참석, 고인을 애도했다.

쟁점 사안이 터졌을 때 한 마디하고 조용히 지내던 과거의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평소 투철한 그의 국가안보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의 초기대응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북관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는 ‘안보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세비 내년 5.1% 인상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내년 5.1% 오른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올해보다 142억2400만원이 증액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의 세비(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올해 1억1300만원에서 내년 1억1870만원으로 570만원 가량 올랐다. 수당의 경우 올해 9143만원에서 내

년도 9601만원으로 증액됐고 입법활동비는 올해는 매월 180만원에서 내년에는 9만원이 올랐다. 총액 규모로는 올해 355억원에서 내년도 373억4000만원으로 18억원이 늘어났다. 의원 세비가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4대강·대포폰 불씨 살린다

내달 1일부터 예산 삭감·추가 폭로 등 공세 재개 방침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에 따른 서해상의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인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사업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사태에 따라 그동안 공세를 자제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4대강 사업과 대포폰 이슈가 도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무력 도발 사태에 따라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를 거둬들였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재개와 함께 본격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의 70%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는 민주당은 촉박한 예산 심의 일정으로 이를 태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예

산결산위 계수조정소위(12월2~5일)와 전체회의(12월6일) 일정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미 4대강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못하면 당력을 집중해온 ‘사업 저지’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점도 민주당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해상의 한미 연합훈련 종료일인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예산 삭감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애초 2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연거획된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를 다음달 4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장외 집회와 함께 원내에서는 예결위를 중심으로 4대강 예산 삭감에 총력 대응하는 원내

외 병행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예결위 일정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포폰’ 의혹에 대한 공세에도 다시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정보보를 토대로 대포폰과 관련된 추가 폭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 4대강 사업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약간 멀어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 사태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면 4대강 사업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직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엠티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곡수도 시중 노래방과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돼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맞는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
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필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아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매문의 02-522-4355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상가 상업중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의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점점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협협동조합
안강농협협동조합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전대점 268-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환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

을 원하신다면 한수강료, 집 가감하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후문앞) 268-8111